

돈 되는 희귀 동전·지폐 투자... 현금사용 줄어도 몸값 '깡충'

1998년 발행 500원 동전, 액면가 4000배에도 구하기 힘들어 이승만 대통령 나온 1953년 '좌이박 황색지', 수천만원 호가 조폐공사 창립·올림픽 기념 화폐도 인기... 액면가 두 배 이상



<1면에서 계속> 해당 구매금을 작성한 김현준(34)씨는 "(1998년 발행 500원 주화) 시세는 천차만별이다. 최고 800만원에 거래 완료된 것도 봤고, 매매상에 문의하면 상태에 따라 100만~200만원 정도에 매입하겠다고 했다"면서 "200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향후 그 이상이 되리라 예상하고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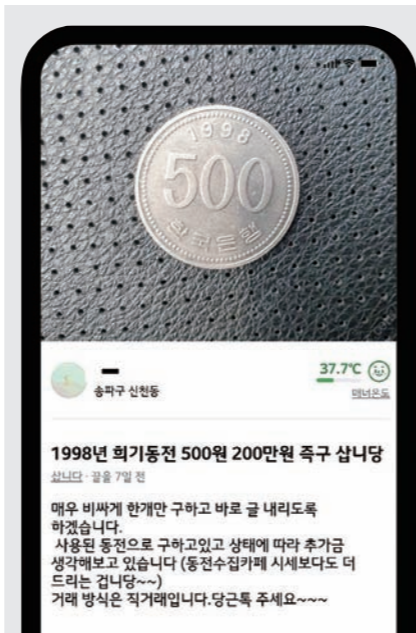
이어 김씨는 "아직까지 팔겠다는 사람보다 '그 이전에 찍은 500원은 더 비싸냐' '1998년 발행 100원은 필요 없냐' '폐지 저금통을 깨보겠다' 등의 문의가 더 많다"면서 "1998년 500원은 미사용품, 소위 '민트 급'이 거의 없다고 봐야하고 만약 있다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집가들은 동전보다는 '주화'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98년에 발행된 500원 주화는 예전부터 비싼 가격에 거래돼왔다. 수집가들 사이에서 특히 1998년 500원 주화가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다. 1997년 일어난 'IMF 외환사태'로 이듬해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량을 크게 줄이면서 500원 주화는 그 해 단 8000개만 제작됐다. 그마저도

외국 선물용 세트로만 제작돼 수집가들 사이에서 희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화로는 1966년 발행된 10원과 50원 주화, 1970년 발행된 100원 주화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30만원대와 1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1970년 발행된 10원 주화 가운데 적동으로 제작된 것은 80만원대를 호가한다.

특이 번호 화폐도 고가에 거래돼
이러한 화폐 투자 열풍은 주화에만 멈추지 않는다. 지폐도 훌륭한 투자 대상이다. 지폐의 경우 고유의 일련번호(기번호)가 특이하면 몸값이 된다.

7자리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솔리드 노트(solid note)', 맨 앞 자리를 제외한 6자리가 모두 '0'인 '밀리언 노트(million note)', 연속 배열이 반복되는 '리피터 노트(repeater note)', 앞뒤 어디부터 읽어도 배열이 같은 '레이더 노트(radar note)' 등이 지폐 가치를 높이는 기번호다. 행운의 숫자로 알려진 7로 구성된 솔리드 노트 5만원권은 150만~20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가치가 높은 지폐로는 이른바 '좌이박 황색지'가 꼽힌다. 이는 지폐 왼쪽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인쇄된 황색 종이 100환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로 일본의 '엔(圓·약자 ¥)'을 광복 이후까지 쓰다가 1953년 '환(圓)'을 되찾은



17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1998년에 발행된 500원 동전을 200만원에 사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 캡처

희귀 동전	
1966년 30만원대	1972년 15만원대
1970년(황동) 15만원대	1966년 30만원대
1970년(적동) 80만원대	
1970년 10만원 이상	1987년 10만원 이하
1981년 10만원 이상	1998년 100만원대

[그래픽=이호연 기자]

뒤 1962년 한글 '원'을 채택했다. 황색지는 1953년 12월부터 한 달 남짓, 1~5년 판만 발행돼 수량 자체가 적고, 보존 상태가 좋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덕분에 '좌이박

황색지'는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특정한 행사·인물 등을 기념하는 화폐도 가치를 인정받는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념한 2000원권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념지폐(기념은행권)로, 총 230만 장(11만 세트)이 불과 9일 만에 품절됐다. 낱장형 8000원, 24장 전지형 16만8000원으로 판매된 이 기념지폐는 중고시장 시세로 각각 2만5000원, 25만원으로 훌쩍 뛰어가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 조폐공사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발행한 '한국의 화폐' 역시 판매가 11만5000원을 크게 넘는 24만~26만원대에 거래된다.

지폐와 주화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중고 거래의 특성상 객관적 집계 자료가 없어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45년 경력의 화폐 수집가 '차르'(필명·64)는 "주로 북미권에서 희귀한 기번호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수집 풍조가)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 들어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많이 늘어서 애호가 또는 동호인만 3만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현금 찍는 걸 차츰 줄여가고 있으니 희귀성과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화폐 전문기업 풍산화동양행 관계자는 "희귀 화폐나 고가의 화폐를 구입할 때,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지고 감정을 줄 수 있는 화폐상 협회나 공인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면서 "최근 중국에서 유입되는 모조 화폐가 상당한 만큼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고가의 화폐를 구입할 때는 믿을 만한 화폐상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김학형 기자 htkim@skyedaily.com

코람코, 'GRESB 2022' 인증 참여

위원회 조직·전담팀 신설 ESG 투자자 수익제고 도움



코람코자산신탁과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코람코)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내달 시작되는 'GRESB 2022(글로벌 부동산자산 지속가능성 평가)'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GRESB는 부동산 자산과 사회 공공 시설 등 실물자산을 대상으로 환경과 사회,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구다.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유럽과 북미로 평가대상을 넓혀왔다. 최근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물자산에 대한 ESG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GRESB는 일반적 친환경 인증과 달리 운용사의 정책과 사회기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국가별, 자산별 비교평가를 통해 점수를 매겨 각 자산운용사 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한다. 평가 기준도 매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인증 참여기관들의 ESG 수준도 함께 성장된다. 이러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와 운용업계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ESG 인증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ESG 컨설팅펌인 ERM의 마크 왓슨(Mark Watson) 한국지사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미 부동산 투자분야의 ESG 도입을 필수로 여긴다"며 "GRESB 인증은 운용자산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공정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인증이다"고 말했다.

코람코는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합쳐 약 25조원의 부동산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민간 리츠부문 1위 운용사다. 자산 운용업계에서 ESG를 가장 먼저 도입했

다. 코람코자산신탁에 따르면 GRESB는 부동산 자산과 사회 공공시설 등 실물자산을 대상으로 환경과 사회,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구다. 코람코자산신탁

다. 2006년 사외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2010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과 협력해 '그린스마트빌딩 지표'를 자체 개발해 빌딩 전반의 친환경성을 관리하고 있다.

작년 말 윤용로 이사회 의장을 주축으로 각 부문대표와 탄소중립 도시 연구소인 '리이미재싱 시티스 파운데이션(Reimagining Cities Foundation)' 공동 설립자 차정하 대표를 ESG위원으로 위촉하며 ESG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달 초 ESG전략팀을 신설했다. 이번 GRESB 인증도 ESG 구조화의 일환으로 각 조직에 흩어져있던 ESG 기능을 한데 모아 전사적 ESG 역량을 평가받으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GRESB 2022는 내달 새로운 ESG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6월까지 참여 기업들의 ESG 현황점검 및 성과증빙을 제출받아 10월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이재민 코람코 ESG전략팀장은 "부동산자산운용이 발달로 환경과 사회, 이해관계자가 어우러진 ESG의 총화다"며 "이번 GRESB 인증을 통해 ESG가 투자자의 수익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투자업계 전반의 ESG 기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메타버스 시상식

전국 475개 대학 3891명 참가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이바지

한국투자증권이 17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제4회 뱅크스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시상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475개 대학의 대학

대학원생 3891명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지난해 10월부터 8주에 걸쳐 진행된 모의투자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리그별 수익률 상위 각 10명과 팀 대항전 상위 3개 팀을 선정해 장학금과 상품을 수여했다. 국내리그 5명, 해외리그 5명 등 총 10명에게는 올해 한국투자증권 공채 서류전형 통과 혜택을 준다.

국내주식 리그에서는 김대일(26·인하대) 씨가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다날·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 투자해 243.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주식 리그 1위는 231.1%의 수익률을 기록한 김예은(26·순천향대) 씨가 차지했다. VIX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주로 투자했다. 팀 대항전에서는 대학 2~3학년생이 주축이 된 '장재이

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MZ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성환 개인고객그룹 부사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MZ세대와 소통하고 양질의 투자경험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리턴업 전속모델 성유리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시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282-9988